

2025 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2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빌 1:4, 8, 18, 25, 27, 2:2, 12-13, 17-18, 28-29, 3:1, 4:1, 4, 10, 15-16

[빌 1:4]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 1:18]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이니, 이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빌 1:27]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 2:12-13]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2:17-18]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¹⁸⁾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 2:28-29]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도 슬픔을 떨려는 것입니다. (29)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빌 3: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빌 4: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빌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 4: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 4:15-16]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¹⁶⁾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습니다.

I.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주로 우리의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다.

A.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며,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책이다 —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빌 1:4]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빌 1:18]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이니, 이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 2:17-18]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¹⁸⁾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 2:28-29]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도 슬픔을 덜려는 것입니다. ⁽²⁹⁾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빌 3: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빌 4: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빌 4: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B.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하였다. 그들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한 것은 사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한 것을 포함했다 — 빌 4:10, 15-16.

[빌 4: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 4:15-16]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¹⁶⁾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습니다.

1.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며,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단체적인 생활이다.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교통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선택은 처리된다.

2. 우리가 말할 때든지 잠잠할 때든지,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존재와 전 인격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 빌 1:20, 4:22, 비교 고후 3:3.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 4:22]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 C.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이다 — 빌 1:27.

[빌 1:27]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1. 복음의 일을 위해 한 혼이 되고 같은 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한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혼이 된 형제였다 — 빌 2:19-21, 비교 2:30.

[빌 2:19-21]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²⁰⁾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²¹⁾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 2:30]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게 되었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 한 혼이 되려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 더 나아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 고후 3:18, 롬 12:2.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생각과 결정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닌 한, 우리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4.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질 때, 이러한 하나는 확신을 주고 굴복시키고 매혹적일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 D.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다. 음식을 먹지로 먹지만 음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 II.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 빌 1:20-21, 2:2, 5, 3:7-14, 4:13.

[빌 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빌 2: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빌 3:7-14]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⁸⁾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⁹⁾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¹⁰⁾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¹¹⁾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¹²⁾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¹³⁾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¹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빌 4: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 것(고후 3:14)과 눈먼 것(4:4)과 반역적인 것(10:4-5)과 부패된 것(11:2-3)에서 구출되어야 한다.

[고후 3:14]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굳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동일한 너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후 4: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후 10:4-5]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⁵⁾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³⁾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 B.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 고전 1:10, 빌 3:8-9, 15, 4:2.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빌 3:8-9]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⁹⁾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빌 4:2]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 C.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가지 것,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딤후 1:3-4, 골 3:10-11.

[딤후 1:3-4]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⁴⁾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D.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사실상, 세 단계로 된 총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 하, 계 1:4, 3:1, 4:5, 5:6). 하나님의 갈망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골 1:17 하, 18 하, 고후 12:2 상, 2:10, 3:3).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계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골 1:17-18]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¹⁸⁾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 E.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빌 4:2), 사도는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기쁨이 넘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2:2).

[빌 4:2]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1. 한 가지 것 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가득해야 한다.
2. 빌립보의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빌 2:2). 그들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같은 사랑을 가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절되고 처리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곧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합당한 혼, 곧 다른 성도들의 혼과 하나인 '함께하는 혼'을 가져야 한다.

III.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 빌 1:8.

[빌 1: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A.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속부분들에서 체험하신 것에는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즐거움과 느낌이 포함된다 — 시 16:3, 7(각주 참조).

[시 16:3]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뛰어난 이들이니 / 저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시 16:7] 제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 참으로 밤마다 저의 속부분들이 저를 가르칩니다.

- B.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았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부분들,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 골 3:12.

[골 3: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 C.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몸의 생활에 대한 그림을 본다 — 몬 7, 10-12, 20.

[몬 1:7]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몬 1:10-12]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¹¹⁾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¹²⁾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몬 1:20] 그렇습니다, 형제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서 유익을 얻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부분들이 상쾌해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 구원받았다. 바울은 그를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다 — 몬 10.

[몬 1:10]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2. 바울이 그의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 때, "내가 그(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 몬 12.

[몬 1:12]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3.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 '심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속부분들'과 같다. 이 말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징한다 — 골 3:12.

[골 3: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D.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몸에 대해 가지신 느낌이 몸에 대해 바울이 가진 느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 고후 12:15.

[고후 12: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E.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몸과 동일시한다면, 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며,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 마 16:24, 엡 4:16.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F.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 — 고전 12:26-27, 롬 12:15.

[고전 12:26-27]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²⁷⁾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롬 12: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IV.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 빌 2:12-13.

[빌 2:12-13]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뜻을 세우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뜻을 세움’을 일해 넣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뜻을 세우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B.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신다.

C. 우리는 아가 4장 4절에 있는 예표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절은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에 관해서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대요.”라고 말한다.

[아 4:4]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대요.

1. 성경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완고하고 교만하다(사 3:16). 이처럼 목은 사람의 의지를 가리킨다. 주님은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사 3: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여 /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면서 / 추파를 던지고 / 종종걸음으로 걸으며 / 발의 밧줄을 찢랑거리는구나.”

2. 목이 망대와 같다는 것은, 추구하는 이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될 정도로 그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추구하는 이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데로 이끌렸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3. 망대 안에 두어진 무기는 원수가 믿는 이의 의지를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승리를 상징한다.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용사들은 힘을 의미한다.
4. 요약하면, 아가 4 장 4 절은 믿는 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하고, 믿는 이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망대만큼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믿는 이는 깨어 경계하고 있으며, 원수가 자신의 복종하는 의지를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 4:4] 그대의 목은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 천 개의 작은 방패와 /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

- 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하는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노아가 건조한 방주의 예표에 나타나 있다.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빌 2:8, 12-13.

[빌 2: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 2:12-13]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¹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1.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는 다만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사람인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다 — 창 6:14, 고전 12:12, 엠 2:15-16, 골 3:10-11.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엠 2:15-16]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¹⁶⁾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 3:10-11]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2.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홍수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창 8:13-19, 벰전 3:20.

[창 8:13-19] 노아가 육백일 세 되던 해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고 내다보니, 지면이 말라 있었다.⁽¹⁴⁾ 둘째 달 곧 그달 스무이렛날에는 땅이 다 말라 있었다.⁽¹⁵⁾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¹⁶⁾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¹⁷⁾ 너와 함께 있는, 육체를 지닌 살아 있는 온갖 것 곧 새와 가축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떼 지어 다니며 땅 위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¹⁸⁾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¹⁹⁾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것과, 온갖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벤전 3: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3.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지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마 24:37-39, 눅 17:26-27, 살전 5:3)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눅 21:36, 계 3:10)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7:26-27]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²⁷⁾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살전 5: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눅 21:36]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